

주제:교회의 역할

강사:이정현 목사

I. 서론

사회학자의 말을 빌리면, ‘현대사회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고 말한다. 어른이든, 젊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갖지 못한 자든 모두가 다 같은 죄악을 향해 브레이크가 터진 자동차처럼 질주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계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부패의 냄새가 진동한다. 사회악, 그것이 실제적인 악이든 구조 악이든 간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만연해 있다. 도덕타락의 시대에서 도덕부재의 시대로 옮겨진지 벌써 오래이다. 분명 현 사회가 중병에 걸려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돈, 세습, 도덕적 부패, 기득권 싸움 등등으로 인하여 사회의 심각한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한국에 상륙한 기독교는 우리 나라의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안타까운 일은 일부 교회들이 사회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

문제는 누가 더 타락했으며, 더 중병에 걸려 있는가 이다. 만약 사회보다 교회가 더 심한 중병을 앓고 있다면 교회는 더 이상 사회를 고치고 치료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지금 기거동작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였는데, 어찌 사회와 교회밖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법이다.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논하는데, 만약 우리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교회가 바른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거기에는 거룩함이 유지되고, 아울러 자동적인 성장과 역동적인 삶이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교회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다. 이어서 교회의 기능 즉,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교회가 제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며,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다.

II. 교회의 정의와 기능

1. 교회란 무엇인가?

1) 교회란?

교회라는 말의 영어(church)나 스코틀랜드(kerk)나 독일어(kirche) 단어들은 본래 그리스어 큐리아코스(kuriakos)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그 뜻은 "주께 속하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교회라는 말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생겨난 성경에서 원어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구약성서에서는 교회를 카할(qahal)이라는 히브리어로, 신약성서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ekklesia)라는 고전 그리스어를 사용하였는데 두 단어는 본래 종교적, 사회적 집회(集會)를 뜻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히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의미로서 본래 고대 회랍 도시국가 시대에는 시민모임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그 말이 성경에 사용되면서 교회,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칼빈은 한마디로 교회를 "현재 지상 교회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뿐만아니라 천지창조 이래로 선택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회라는 이름은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지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한다.

2) 교회의 성경적 의미

성경은 교회의 본질에 관해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 중에 대표적인 특성 세 가지를 간략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1)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고린도후서 6장 16절). 교회는 본질적으로 건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존재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교회)에게 속해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차적인 존재이유는 "사람들"이며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헨드릭 크래머(Hendrick Kraemer)라는 신학자는 교회의 본질적 주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냉동된 자산"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교회가 "사람들"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정립하고 그들의 "냉동된 자산"을 일깨워 "활동하는 자산"으로 변화시킬 때 교회는 비로소 그 사회에 진리의 빛을 비추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2)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은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고린도전서 12장 27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육신의 형체를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수의 몸이 되어 그 일을 대신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무언가 말 씀을 해야 할 때에는 예수의 입이 되어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에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하며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하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예수의 몸이 되어 대신 해 줄 사람들을 모으셨는데, 이 공동체를 가 리켜서 "교회"라고 부른다. 예수께서는 그 교회에 자신의 영(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신의 몸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예수의 영을 지닌 예수의 몸이 되었으며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제 각각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상이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교회의 특성도 쉽게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의 세 가지 대표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는 다양성(diversity)이다. "몸은 한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고린도전서 12장 14절). 우리의 몸은 하나이지만 우리 몸에는 눈, 코, 입, 손, 팔, 다리, 발과 같은 다양한 지체들이 각각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한다. 이 다양한 기능 중에 어느 한가지라도 멈추게 되면 몸은 당장 이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위치와 모습과 기능은 서로 달라도 그들의 존재가치는 몸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다.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을 통해 각각 다양한 은사(恩賜: Spiritual Gift)를 부여 주셨다. 어떤 이에게는 눈의 기능을, 다른 이에게는 입의 기능을 또 어떤 이에게는 손과 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부여 주셨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생존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체인 교인들이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다양한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대내외적 활동, 즉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성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독특성과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과 기능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는 그 다양성의 넓이와 깊이만큼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주의적이고 획일적인 사회는 다양하게 발전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

서 교회가 지니는 다양성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시사하는바가 크다.

둘째는 연합성(unity)이다.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고린전서 12장 20절). 인간의 몸은 따로 따로 떨어진 조각들의 모임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기능적인 지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이다. 이 연합이 없이는 인간의 몸은 가능하지 못하며, 존재할 수조차 없다. 우리 몸 중에서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들을 잘라 버리면 그 지체들은 죽어 버리고 그 몸은 불구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립과 분열과 왕따를 시키는 것은 몸을 죽이는 독소이며 연합은 몸을 살리는 본질적인 힘이다. 연합을 통해서 몸의 다양한 지체들은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교인간의 친밀한 협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의 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교회의 특성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사회에 아무리 유능하고 특출한 인물이 많을지라도 그러한 특출한 능력들이 사회적 기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의 다양한 요소와 계층들을 연합시키는 사회적 기능이 발달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대중문화가 개발되어 자유로운 만남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종교, 정치, 사회, 문화의 다양한 분야들간의 협력관계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사회의 모든 요소들이 원활한 교류를 통해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 기능이 극대화되며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셋째는 조화성(harmony)이다. "하나님께서...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분열이 없이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2장 24-25절). 몸이 지녀야 하는 다른 중요한 특성은 조화 또는 상호성이다. 몸의 지체들이 독특하고 훌륭해도 그 지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몸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병들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불화와 다툼, 대화의 단절과 같은 일들이 자주 발생하여 지체사이의 원활한 흐름이 막히게 되면 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지체의 상호 필요성이 존중되고, 지체사이에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는 정신이 교회안에 있어야 한다. 교회의 이러한 조화성은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다. 사회의 다양한 제도, 신분, 직업, 계층에 대한 상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 그리고 이들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이나 신분사이에 편견이나 불화로 인해 상호 교류가 막혀 버리면 그 사회는 사회 구조가 불균형하게 발달함으로 조화가 깨지고 불안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의 작은 이상사회(理想社會)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류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천여년 동안 기독교 정신의 영향을 받아온 서양사회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었던 사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없다.

(3)성령의 성전(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고린도전서 3장 16절). 기독교회가 다른 사회단체와 구별되는 가장 독특한 점은 성령의 존재와 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발생은 이천여년 전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대교의 큰 명절중 하나인 오순절 백이십여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聖靈)이 그들 위에 강림하였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은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 능력에 의해 그날 삼 천명의 새로운 신자들을 얻게 되었다(사도행전 1:12-2:13).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곧 기독교의 교회가 탄생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에 의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성령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또한 모든 교인들 안에 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하게 유지되

어야 하고 성령의 이러한 활동의 외적 결과들이 교인들의 삶을 통해 밖으로 나타나야 한다. 성경은 성령활동의 외적 결과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데 그 열매들은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을 행함, 신실함, 온유, 절제"와 같은 덕목들이다. 교회와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지시를 따라 살게 되면 그들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고상한 덕목들의 존재여부가 그 교회와 교인의 삶의 순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정한 평가 기준은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내적인 기준들, 즉 성령의 열매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질과 가치를 높이는 일에 기여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의식하여야 할 것이다.

2. 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1) 전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장 19절). 어느 바닷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인근의 바다에는 험한 암초들이 솟아 있어서 지나다니는 배들이 난파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곤 했다. 언덕 위에 등대가 하나 있었지만 악천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 어느 날 마을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제일 높은 언덕 위에 초라하지만 해난 구조소를 세우고 구조작업을 펼쳤다. 이 마을의 해난 구조대에 관한 소문은 곧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기금과 자원 봉사자들이 모여들었다. 그 해난 구조소는 늘어나는 자원 봉사자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 적립된 기금으로 새로운 해난 구조소를 신축하고 대원들을 위한 오락시설도 마련하였다. 회원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교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의 본연의 업무인 인명구조에 대한 관심은 점점 시들어 가기 시작했고 해난 구조대는 서서히 회원들의 사교클럽으로 모습이 바뀌어 갔다. 그렇게 되자 몇몇 의식 있는 회원들이 사교클럽으로 변질된 그 해난 구조대를 탈퇴하고 그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바닷가에 다시 새로운 해난 구조단을 세웠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다. 기독교의 구원사역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누군가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일이다.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하셨으므로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구원사역의 두 번째 요소는 세상에 나아가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널리 선포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사역이 바로 예수께서 교회에게 맡긴 사명이다. 예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행전 1:8)라고 말씀하셨다. 교회의 복음전도는 자신의 안방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국경을 넘어 땅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믿는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바울의 마음/빌립보서 1장

고린도전서 9장

어느신학교/

현재의 기독교는 이천년 기독교의 헌신적인 선교의 결과이다. 한국 기독교의 눈부신 발전은 100년 전 서양교회들의 헌신적인 선교가 밑거름이 되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또한 목적이다.

2) 교육과 훈련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복음을 받아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이다. 교회의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교육받고 훈련되지 못하면 그들은 다만 냉동실 안의 냉동된 자산에 불과한 것이다. 교회 안의 모든 교인들이 신앙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속에 기독교의 고상한 가치관을 확립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속한 사회가 변화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어린 아기들의 모습은 모두 아름답고 귀엽다.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면서 어떠한 가치관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히틀러도 될 수 있고 테레사 수녀도 될 수 있다. 가치관은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느냐는 문제는 인간에게 너무도 중요한 과제이며 그러므로 교회 교육과 훈련의 영원한 화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고상한 가치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린도전서 13장 13절). 교회의 교육과 훈련은 이 가치관이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믿음(faith)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히틀러는 자신의 신념대로 육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했으며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인도의 캘커타 빈민굴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다가 그의 삶을 마쳤다. 신념은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신념은 상대적이고 변화하며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 히틀러나 김일성 주체사상이었던 황장엽씨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겐 절대적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신념이 필요하다. 절대적이며 영원한 가치는 절대적이며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신념을 신앙이라고 한다. 테레사 수녀의 신념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상한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객관화 할 수 있게 된다. 세속적인 것을 절대가치화 할 때 인간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인간의 영혼과 사회적 삶의 부패와 죽음을 막아주는 생명력 그 자체이다.

둘째는 소망(hope)이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를 안내하던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에 이르러 그곳은 죽을 수 있는 희망조차 없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소망이 없는 현실의 삶은 지옥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에겐 본능적으로 미래를 바라는 소망이 있다. 그것은 각국의 작별인사말에 잘 나타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헤어질 때 "다시 보자"(see you again)든지 "내일 만나자"고 인사를 나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기대와 소망을 보여준다. 인간에게 있어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며 역경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기대와 소망은 종종 실망과 좌절을 가져온다. 그 기대와 소망이 세상적인 조건이나 약속 같은 것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조건과 약속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확실하고 변치 않는 소망은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야만 한다. 그 믿음에서 우리나라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을 때 인간은 오늘의 장애를 넘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셋째는 사랑(love)이다. 위를 바라보는 믿음과 앞을 바라보는 소망은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해주는 귀중한 가치들이다. 그러나 그 두 가지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아직 이기적이지요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 믿음과 소망의 가치가 진정으로 고상한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은 첫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을 경천애인(敬天愛人)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 사랑의 대상이 부모,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 혹은 이성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랑은 대부분이 "때문에"(because of)의 사랑이다. 부모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랑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despite)의 사

랑이다. 그 사랑은 상대방의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 이 사랑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다. "불구하고"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흘러나올 수 있다. 테레사 수녀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 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교인들을 사랑의 제자들로 만들어야 하고 그들을 통해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3) 예배

교회의 다른 기능은 예배이다. 교육과 훈련이 교인들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예배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다. 기독교에 있어 예배란 신앙의 불가결한 표현이다. 그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는 또한 인간의 삶 그 자체이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예배가 수평적인 관계 즉, 나와 너의 역동적인 만남의 관계로 표출되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질 수 없는 전인적인 드림을 의미한다. 교회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삶 전체가 드림의 예배가 될 때 교회는 진정한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다.

교회의 제 기능 중 예배의 중요성/전도, 교육, 봉사, 예배...예배는 교회의 자기표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은혜 받는 수단...말씀, 성례, 기도...예배에 포함된 사항들

우리가 회복해야할 사항/천상예배(계4-5장)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산다.

4) 구제와 봉사

성경은 교회의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말한다. 신약성경을 살펴보면,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청지기로 표현하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을 말한다. 기독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능, 시간, 물질, 복음을 맡은 청지기이다. 그러므로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는 뜻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을 다했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교회내의 과부들, 고아들, 실직자들,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들, 장애인들, 없어서 못 배운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단히 도와주어야 한다. 구제와 봉사의 모범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이다/설명

III. 결론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하나님의 사람들/그리스도의 몸/성령의 전

교회의 제 기능?

전도/교육과 훈련/예배/봉사